

News

윤석현 “은행권, 소상공인 대출상환 유예 지원해달라”

연합뉴스

“앞으로 은행권의 지원 제도를 보다 활성화해달라...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 대상자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
금감원은 실적점검 등을 통해 은행들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영업점 직원 대상 교육과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

연체 대란 막아라...정부, 자영업 대출 56조 만기 연장 검토

한국경제

정부가 당초 9월 말까지로 계획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한시적 지원조치의 연장 여부와 정상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39조원 만기 연장

6월 대기업 대출 감소세 전환...중소·소호 대출 증가세 꺾여

파이낸셜뉴스

5대 시중은행의 6월 여신계수 현황에 따르면, 이달 대기업 대출 잔액은 85조798억원으로 전월 대비 4.3%(3조8,229억원) 감소...
지난 3~4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앞다퉀 은행 대출을 활용...최근 회사채 시장 안정세 되찾으면서 대기업 대출 수요 크게 줄어

외환보유액 4천107억달러...한달 새 34억달러 늘어

연합뉴스

6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천107억5천만달러로, 지난 5월 말(4천73억1천만달러)보다 34억4천만달러 늘어...석달 연속 증가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8억8천만달러 늘어난 3천725억8천만달러로 집계되어 대부분을 차지

펫보험 팔수록 손해...동물병원 치료비, 보험사도 두렵다

머니투데이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2만2,000여건으로 2년 전과 비교해 10배 가량 급증...원수보험료도 112억5,000만원으로 9억8,000만원에 그쳤던 2년 전보다 10배 이상
관계자, “최근 슬개골 탈구와 같은 고액 치료비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라 이대로 가면 조만간 손해율이 100%를 웃돌 것으로 예상...‘배상책임보장’은 손해율은 이미 200% 수준”

글로벌 증시 회복에... ELS 조기상환 1조원대 회복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한 달간 ELS 상환액은 1조2,855억원으로 집계...월별 ELS 상환액은 3월 1조7365억원, 4월 2584억원, 5월 1574억원으로 급감 후 한 달만에 상환액 10배 가까이 늘어
주요 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수익률 조건을 조기에 달성한 ELS 조기상환 규모가 1조2000억원을 넘어선 덕분

금융당국, 사모펀드 1만여개·운용사 233개 3년내 전수조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에 대한 전수 검사를 3년 이내 완료 계획...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

동학 개미 몰린 증시...반년 만에 지난해 거래대금 돌파

연합뉴스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국내 주식시장 누적 거래대금은 약 2천293조6천억원으로 집계...이는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거래대금(2천287조6천억원)을 0.3%가량 웃도는 수준
이런 추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거래대금은 2000년대 들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현재 연간 거래대금 최대 기록은 2018년의 2천799조7천억원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